

“한국 선불교는 보조선이자 임제선”

보조사상연구원, 10월 18일 제24차 국내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 제24차 국내학술대회.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보조선과 임제선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고려 말 강화선 주장을 통해 선불교의 씨앗을 심은 보조지눌 스님(1158~1210). 하지만 보조 지눌 스님의 입적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러 임제선이 전래되며 보조선은 상대적으로 그 빛이 가려져 왔다. 하지만 임제선의 열풍 아래에서도 보조선의 선풍은 끊이지 않고 수선사 선승들과 여말선초 선사들에 의해 이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이 보조 지눌 스님에 의해 제시된 선풍이 여말선초의 선사들과 거사들에게 어떻게 연속되어졌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보조 스님이 정토수행을 부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후대선사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했는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시대상황과 인식 투영됐을 뿐, 차이 없어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한국 간화선은 보조선인가 임제선인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선법은 7~8조에서 그 맥이 끊어진 북종과 달리 남종선의 임제종 양기파 일변도로 맥을 이어왔다”며 “때문에 고려 중기에 자생한 보조선(普照禪)과 고려 후기에 재전래한 임제선(臨濟禪)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가 늘 문제가 되어 왔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조사선의 흐름을 계승해온 임제선과 남종선의 사굴산선 선법을 계승해온 보조선은 그 법통과 법맥이 다르지 않다”며 “고려 중기 지눌이 돈오점수의 수행

법과 선교일원의 사상체계를 모색한 것과 고려 말 태고(太古)와 나옹(懶翁) 등에 의해 재전래된 임제선법이 돈오돈수에 입각한 사상체계를 강조한 것은 시대상황과 역사 인식이 투영된 것일뿐 그들 선사상의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계에서 보조선과 임제선이 근원부터 다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청허 휴정 이후 편양 언기 등의 임제법통 정립이라는 정통성 문제를 가미시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 교수는 이어 “법통과 법맥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정치사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는다면 한국의 간화선은 ‘보조선이자 임제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보조선의 장점이 임제선의 가풍 속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제종 순수성 위해 지눌 법통서 제외

이와 함께 후대 법통 정리 과정에서 보조선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오경후 동국대 연구원은 ‘여말선초 보조선(普照禪)의 법통과 법맥’을 통해 한국선종사에서의 법통과 종조문제를 짚었다.

오경후 연구원은 “조선 후기 청허 휴정의 제자들에게 법통이 정리됐지만 이들은 임제선의 수용이 본격화된 고려 말 조선 초 불교사적 사실을 임의대로 재구성했다”며 “환암 혼수·구곡 각운·벽계 정심의 법통을 태고 보우의 계보로 편입시켰다. 이들은 임제종의 순수성 강조를 전제로 보조 지눌을 임제종과 상관 없는 별종으로, 나옹

혜근을 평산 처림의 분파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이 같은 법통 인식은 보조 지눌과 나옹 혜근의 위상과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해당 서울과기대 교수는 ‘여말선초 거사들의 보조선 인식과 계승’을 통해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하였던 거사들이 보조선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승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박 교수는 “이 시대의 사대부들 가운데에는 불교적인 의미에서 ‘거사’라고 할 만한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이들에게는 ‘보조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선풍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전제하며 “이 시대의 사대부들이 대부분 불교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보조선 계승이 자연스럽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조 스님 수용 자세는 후학 교훈

신규탁 연세대 교수는 ‘불교 이해에 나타나는 보조의 모순과 종합성’ 발표에서 열불사상을 중심으로 보조 지눌 스님의 수용태도를 점검했다.

신 교수는 “보조에게는 열불선에 대한 수용의 면도 보이고, 또 평화의 면도 보인다. 이는 ‘모순의 노출과 종합’이라는 입장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지눌은 자신의 현재적 관점에서 과거 사상들을 허심탄회하게 수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는 자기 철학은 없고 역사적 기술만 늘어놓는 현대 한국의 불교학계에 많은 교훈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교 관계자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법사는 “지명에는 그 시대의 역사와 생활, 그리고 문화가 스며있는 문화재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라며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명을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알리고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런 포교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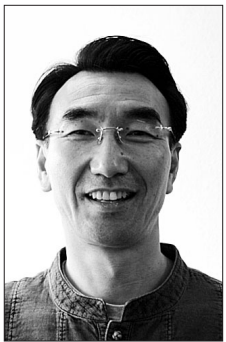
공개수업에 앞서 최경대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빛고를 광주의 유일한 불교 종합학교인 정광학원은 조계종 중흥을 지내신 민암스님과 전남 5대본사의 출현으로 개교했다. 본 학교는 불교교육을 통한 대중포교와 불국정토의 구현 그리고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은 10월 24~25일 양일간 라마다호텔과 정광고등학교 등 광주지역 종합학교에서 제44회 교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24일에는 교장협의회, 교법사단의 정기총회, 25일에는 공개수업 및 학생 동아리활동 전시 작품 관람, 교학논문 발표가 이어졌다.

노덕현 기자 · 양행선 광주전남지부장

“지역 명칭의 불교요소 활용한 종교교육 필요”

이동배 교법사, 전국불교교육연합회 연구발표회서 주장



“전국 각지에는 불교 명칭의 지명이 많지만, 자라라는 세대들은 이를 전혀 모르는 실정입니다. 교육에 있어 이러한 지명과 관련된 불교의 문화를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개최한 종합학교의 불교교육에 대한 연구발표회에서 불교지명을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월 24일 광주 정광고등학교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이동배 교법사(사진)는 ‘지명(地名)에 담긴 불교사상을 통한 불교교육 방안 연구-광주(光州)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교학논문을 발표 및 공개수업을 통해 각 지역의 지명과 불교의 다양한 역사를 연계한 교육방안을 설명했다.

이동배 교법사는 “최근 불교계에서 일고 있는 도로명 주소변경과 관련해 민족문화를 창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우리 문화와 역사를 지워버리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문화말살 정책에도 지치고 보존했던 법정지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라졌던 동명과 지명을 되찾아 민족정기를 되살려야 한다”고 명제를 제시했다.

이러 이동배 교법사는 명칭 변경을 통해

본 광주의 역사와 한국불교에서의 광주, 불교와 관련된 지역명(행정 지역명, 산·강 이름, 사찰이름) 등을 자료로 제시하고, 이어 ‘불교 지명을 활용한 수업안’을 활용과제로 내놨다.

이 교법사는 “광주(光州)는 아미타부처님을 상징하는 빛의 고을, 무등산(無等山)은 비할 바 없이 높은 부처님 경지이자 광주의 대표적 산, 방하동(芳荷洞)은 향기로운 연꽃, 평) hdm의 대표적인 제래시장인 서방시장(西方市場)은 서쪽에 있는 아미타불의 세계, 광주 서구의 염주동(硯珠洞)은 보리수 따위의 열매를 줄에 꿰어서 만든 법구”이라며 광주지역의 불교와 연관된 다양한 지명들의 불교적 의미와 해석을 풀어냈다.

이 교법사는 특히 “아이들이 이러한 지명에 녹아 있는 불교사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이를 알리는데 교법사들과 종합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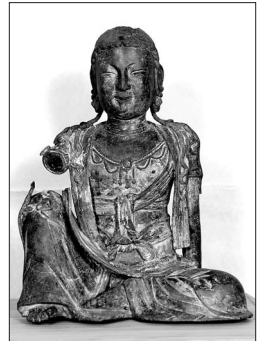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등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 등 8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10월 20일 지정 예고했다.

‘강진 고성사 청동보살좌상(康津 高聳寺 靑銅菩薩坐像)’은 높이 51cm로, 윤향좌 자세를 취하고 있는 현존 불상 중 가장 크다. 특히, 이국적인 얼굴에 우아한 미소를 띤 표정과 편안한 앉아 있는 모습 등 고려 후기 불상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작품이다.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益山 觀音寺 木造菩薩立像)’은 석가여래상불좌상을 형식(脇侍)하는 4구의 보살상 가운데 하나로서, 조선 후기 불전의 봉안 형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울러 이 보살상은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조각승 원오(元悟)가 수조각승(首彫刻僧)을 맡아 1605년에 제작한 불상으로, 17세기 초 조각승들의 활동과 조각 전통의 계승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불상이다.

이밖에도 16세기 후반의 조각 경향을 이해할 수 있는 ‘강진 정수사 석가여래상



고성사 청동관음보살좌상

불좌상(康津 淨水寺 釋迦如來三佛坐像)’과 ‘대방광불화엄경 정월본 권8(大方廣佛華嚴經 貞元本 卷八)’,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34(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三十四)’, 신미대사가 국역한 ‘목우자수심결(언해)(牧牛子修心訣(諺解))’도 보물 지정 예고됐다.

또한 백제 의자왕대 대좌평이 은퇴 후 사찰을 세운 것을 기념해 제작한 비(碑)인 ‘부여 사택지적비(夫餘 砂宅智積碑)’와 경주 궁성과 인접한 월지(月池)에서 출토된 초의 심지를 자르는 특수 용도의 가위인 ‘경주 월지 초심지 가위(慶州 月池 金銅鑷)’ 역시 보물 지정 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불교사상연구, ‘불교와 사회’ 학술회의

원광대·日교토 불교대학과 제23회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과 일본 교토 불교대학은 10월 31일 오전 10시 원광대 승산기념관 3층에서 ‘불교와 사회’를 주제로 제23회 국제불교문화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케미 츠류 교수의 ‘출가와 세간의 관계’, △야기 토

오루 교수의 ‘일본인에 대한 일본인의 제사의식’, △바바 히사유키 교수의 ‘일본 대장경 간행과 한국의 팔만대장경 비교’,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일본 최대 종단 정토진종의 전정책임에 대한 연구’ △한 내창 교수의 ‘현대사회에 대한 종교의 역할’이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환수문화재, 국보·보물 지정 추진한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지난 2011년 일본 공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례 81건 167책을 비롯해 소장처로부터 지정 추천을 받은 환수문화재에 대해 국보, 보물 등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환수된 문화재는 총 145건 9,958점으로 국가문화재 지정 추진은 환수문화재 소장처에서 추천 받는다. 하지

만 프랑스에서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와 같이, 정부 간 협상에 의해 ‘대여’ 형식으로 환수된 문화재는 제외된다.

2011년에 일본 공내청에서 반환받은 조선왕조의례는 현재 총 22개 기관에 소장된 조선왕조의례 3,840책에 대해 보물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EBS와 석굴암·대장경 조명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신용섭)와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문화유산코리아,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10월 24일부터 내년 3월 20일까지 방영한다.

‘문화유산코리아, 아름다운 한국’의 세계유산 방송프로그램은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한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등 불교문화재를 비롯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총 11건의 문화유산을 소개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12시 10분 방영되며, 위성체널인 초·중등·직업(EBS+2) 채널을 통해 11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에 재방영된다.

노덕현 기자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망고, 체리, 아보카도 등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차크라 열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샤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 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자,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르기 어렵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울문경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